

OECD DAC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경험기획실 정책연구팀

[주요 내용]

1. Development Issue

- (1) 제975차 DAC 정례회의(2.10)
- (2) Fragile States 2014: Domestic Revenue Mobilisation

2. DAC 회원국 동향

- (1) 영국 DfID 장관 Smart aid 기조연설 발표(1.27)
- (2) 영국 국제개발위원회 “The Futur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hase 1: Development Finance” 발표

3. 2014년 OECD DAC 3월 일정



1. Development Issue

(1) 제975차 DAC 정례회의(2.10)

① 논의 내용

- Post-2015 개발체제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총공적개발지원* 측정에 포함될 요소로 평화 및 안보, 기후변화 및 글로벌공공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ODA 현대화 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함
 - * 보증, 메자닌금융, 지분투자, 기타공적자금(수출신용제외), 세금면제 등
- DAC 개발개념(개도국의 경제 발전 및 복리 증진)과 비DAC 회원국의 개발개념(상호이익 추구) 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비DAC 회원국의 개발통계 포함 방안 제시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관련, DAC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해 나가야 함

② 시사점

- ODA와 총공적개발지원 범주간 경계 확정에 관한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협의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현재로선 원칙에 기반한 분석에 더 주력해야 함을 강조
- 평화 및 안보, 기후재원 및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측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ODA와 총공적개발지원 범주간 경계 설정 및 동 범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방법론 제시 필요
- Post-2015 체제 하에서 남남협력국가들의 개발재원 통계를 DAC 통계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나 DAC 시스템의 완전성 및 ODA 개념의 유지 측면에서 추가 논의 필요
- 글로벌 파트너십 거버넌스 개편논의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파트너십 모니터링 연례회의가 기존 원조효과성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

(2) Fragile States 2014: Domestic Revenue Mobilisation 발간

- OECD는 취약국에 대한 정의로 ① 정치적으로 정권의 권위·정당성이 부족하고, ② 행정 적으로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의 역량과 의지가 미흡할 뿐 아니라 ③ 내·외부적인 분쟁 상황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 등으로 규정
- 2006년부터 매년 취약국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의 주제는 국내 재원 동원(Domestic Revenue Mobilisation)임

① 취약국의 원조 및 개발재원 현황

- 2015년까지 MDG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곱 개 국가 중 여섯 국가가 취약국에 해당
- 전체 ODA 중 취약국에 투입된 비중은 2011년 2.4%까지 감소했으며 전세계 빈곤 인구 중 취약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 일부 중소득 취약국의 경우 송금의 양이 원조를 능가했으나 최빈취약국은 GDP의 55%를 ODA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송금,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원조 이외의 개발재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취약국의 GDP 중 세금으로 징수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고 이는 UN의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최소징수수준인 20%에 미치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ODA의 0.07%만이 조세체계 구축에 투입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취약국은 세금을 비롯한 국내재원 증대를 통해 원조의존성을 줄이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인간개발에 기여하고 국가 및 사회적 역량을 증대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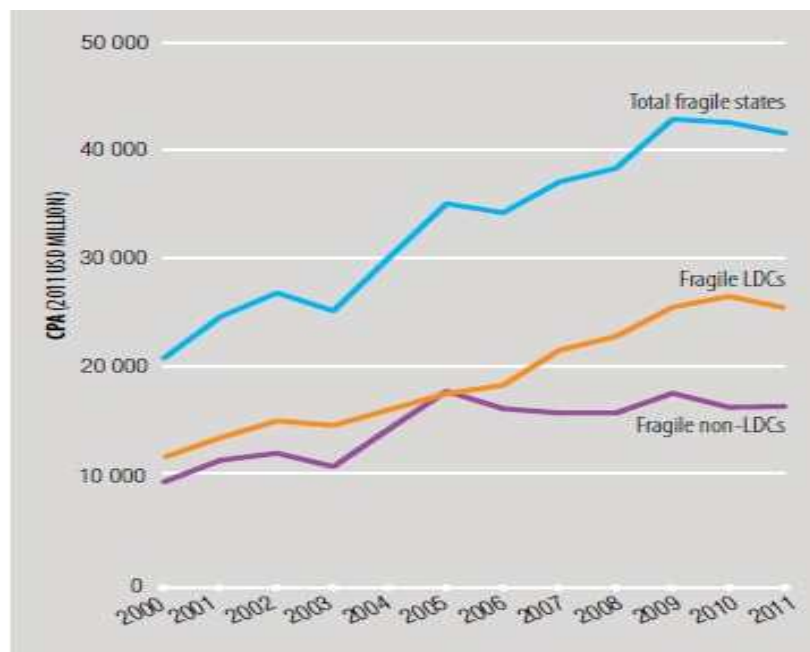
② 취약국의 국내재원 증가를 가로막는 요소들

- 비재생 천연자원(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에의 과도한 의존
- 조세기반 증대의 어려움
- 다국적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
- 기술, 제도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한 탈세 및 자본도피

③ 공여국의 취약국 조세개혁 지원 방안

- 조세기반 확충
 - 소득 또는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 기반 확대
 - 추정조세(presumptive taxation) 등을 활용한 세율의 간편화
 - 관세체계 강화
-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수입 관리방식 개선
- 면세구역, 면세기간 등 투자에 대한 면세 특혜 축소
- 다국적 기업의 투명성 증대
- 교육을 통한 수원국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2000-2011 취약국 원조 지원 추이



출처: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atabases on aid and other resource flows, available at www.oecd.org/dac/stats/idsonline.

④ 취약국의 조세제도 지원을 위한 원조 방식

원조방식	정부 재량권	국별체계 및 제도 활용	운용 방식
일반 예산지원 (General budget support)	있음	활용	조세와 거버넌스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데 적합. 조세수입 목표와 연계된 다양한 분할 발행 메커니즘 활용
부문별 예산지원 (Sector budget support)	특정 부문	활용	예산자금과 공공재정관리(PFM) 간의 직접적 연계 형성. 부문 접근방식은 조세수입 이슈에 공여국의 협조를 유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정부관리 공동출자기금 (Government managed-pooled funds)	협력국	유동적	다자공여국의 지원을 유도하는 데 적합. 최소 3개의 공여국이 참여해야 하고 거버넌스와 국가 구축 관련 요소를 포함해야 함
기타 다자공여국 지원 (Other multi-donor instruments)	일부	유동적	수원국 정부가 예산지원을 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적합한 방식
독자적 양자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Stand-alone” bilateral projects or programmes)	간접적, 공여국의 모범성에 의존	대개 미활용	공여국 주도로 좌우될 위험이 있음. 수원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조세지원 업무 분담을 위한 공여국의 조정능력 필요
남남협력 지원 (Funding South-South co-operation)	공여국의 모범성에 의존	대개 미활용	저비용, 대개 협력국의 흡수 능력에 따라 제한됨
조직 간 지원 (In-kind support)	간접적, 공여국의 모범성에 의존	미활용	숙련된 조세 공무원 파견은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좌우. 동료간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남
비국가행위자를 통한 지원 (Support to and through non-state actors)	간접적, 공여국의 모범성에 의존	미활용	



2. DAC 회원국 동향

(1) 영국 DfID 장관 Smart aid 기조연설 발표(1.27)

- Justine Greening 장관은 1.27일 동아프리카 초청 자본시장 개척 교육프로그램(London Stock Exchange Group Academy) 개최 기념 연설에서 ‘스마트 원조(Smart aid)’ 개념 소개
- 스마트 원조는 영국 국제개발정책의 핵심원칙인 ‘경제개발을 통한 빈곤퇴치’를 반영하고 국제개발정책의 체계화와 개혁을 시사

① 주요 내용

- 경제개발이 영국의 개발협력 사업의 핵심이고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개인소득 및 정부 세입을 증가시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유도
- 아동교육 확대, 질병 퇴치 및 인도적 지원 등의 ‘전통적 원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sustainable, inclusive growth)을 지원하는 ‘스마트 원조’로의 전환 필요
- 스마트 원조는 새로운 시장개척과 투자기회 창출의 측면에서 공여국에도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 혁신적 내부개혁을 단행하고 2015/16년도 경제개발 양자원조 규모를 18억 파운드로 2012/13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 개도국의 무역·투자장벽 제거를 통해 비즈니스에게 우호적인 환경 조성
- 투자 프로젝트가 수익성을 내면 재투자되어 개발 효과를 증대시키는 지원방식(returnable loans and equity)이 미래 DfID의 주요 방식이며 현재 임팩트 투자 펀드(Impact Investment Fund)*를 운용 중

* 2012.12월 DfID 소유 개발금융기관 CDC의 일부로 7천 5백만 파운드의 기금 조성. 아프리카 이남지역과 남아시아의 빈곤인구의 삶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또는 비즈니스에게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 중개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함

② 시사점

- 민간참여 확대, 경제개발을 통한 원조 의존성 극복, 수원국과 공여국의 'win-win'관계 강조 등 영국의 친시장적·친비즈니스 정책 기조의 공식화로 평가
- 수원국의 성장에 따른 정책의 방향전환과 신흥국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하는 국제경제 질서변화를 반영
- 친시장적·친비즈니스 정책과 동시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강조하는 등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

(2) 영국 국제개발위원회 “The Futur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hase 1: Development Finance” 발표

① 배경

- 빈곤의 지정학적 상황 변화,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새로운 개발재원 등장에 따른 변화 대처 필요
- 이에 따라 개발위원회는 2012년 10월과 201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 다음의 의회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올해 중 Development Finance White Paper로 재출간될 예정

② 주요 내용

- 무상원조(grants)만으로 개발원조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소득국에 증여를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영국개발은행을 설립하거나 “in house” 방식으로 양허성 및 비양허성 차관 제공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양허성 차관은 저리의 대규모 선불자금 제공, 수원국의 채무관리역량 증진, 재원순환 및 추가재원 레버리지와 같은 공여국의 이익 증대 등의 장점이 있으나 채무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 필요
 - 중소득국의 고소득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Transition programme) 시 차관 지원이 바람직하며 현재 DFID가 인도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무상원조수원국에서 무역, 경제개발 상호 협력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 내에서 DFID가 인도 내 빈곤지역의 공공부문 프로젝트를 위한 차관 지언을 고려할 수 있음

- 저소득국의 경우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은 차관을 활용하고 보건, 교육과 같은 기초최소요건은 증여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분야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들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자금을 지원해야 함
-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영국 개발은행(UK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여 DFID의 역할을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차관을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개발은행을 설립하면 자본시장을 통한 기금 축적이 가능하므로 ODA에 투입되는 세원을 감축시킬 수 있고 타 공여국의 개발금융 기관과의 합작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새로운 기관 설립에 따라 개발원조기관으로서의 DFID의 지위가 하락하고 차관의 상황에 따른 이익에 주력하여 개발효과의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음
- 다자 채널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DFID 내에서 개발금융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Financial instrument team 창설 필요



3. 2014년 OECD DAC 3월 일정

 <p>March 3-4</p>	DAC Senior Level Mee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ies)
 <p>March 26</p>	DAC Development Deb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새로운 민간부문인가?
 <p>March 26</p>	이탈리아 동료평가

